

버려진다는 것의 의미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내 자신보다 주위 사람들의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영국에서 태어나 30년 이상 한국과 연을 맺고 있는 앨런 팀블릭(Alan Timblick)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모습을 짚어준다. 그는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을 지냈다. 한국 사회를 보는 그의 눈은 예리하다. 한옥 지붕 곡선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옛것을 너무 쉽게 허무는 것을 아쉬워한다.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을 안타까워한다. 2010년 한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차로 변경을 원할 때 그들은 여러분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주는 대신, 차로를 좁히면서 당신 앞으로 들어간다.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길가에 차를 붙이는 대신 길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다. 뒤차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말이다. 방향 전환이나 정지도 사전 신호가 없다. 운전자가 진

입로에 여유가 생기기도 전에 차를 들이밀고 있어 교차로는 항상 병목 현상에 시달린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팀블릭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속상해 한다. 한국인들이 지인과 타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속담의 이면을 지적 받으니, 멧쩍은 웃음을 짓게 된다. 힘들 때 서로 돕는 ‘우리가 남이가’란 끼리끼리 문화는 따뜻한 그늘을 만들지만, 추운 그늘도 만든다. 이런 이중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기견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 시대의 민낯, 유기견

통계에 보니, 한해 전국에서 10만 마리의 개들이 주인에게 버려진다.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짖거나 병에

걸리면, 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대개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지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버린다. 유기견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물이 있다. 실험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동물이다. 이들에게 실험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점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의류 브랜드이다. 문제는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모자 장식에 코요테 털을 쓰는데, 사냥꾼의 밧에 걸린 코요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으로 발버둥 친다.

동물은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띠고 있다. 동물권, 동물복지와 동물윤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얼마 전 강아지 공장의 추악한 비밀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사진이 SNS에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닭은 A4용지 한 장 크기 도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지낸다. 공장식 농장의 돼지는 좁은 우리에서 강제로 몸이 불려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물지 못하도록 아예 새끼 때 앞니를 뽑아 버린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동물보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사고가 사회적 약자, 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시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민낯은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화를 받아들이지만, 일부에선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여전하다. 게다가 인종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한국에선 혈통에 대한 집착과 편견이 있다. 잡종은 태생이 열등하다는 뜻이다. 잡종은 스스로 번식하는 잡다한 풀을 의미한다. 하지만 잡종을 달리 표현하면 하이브리드(hybrid)가 된다. 잡종은 아직 그 가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 된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동거(同居)에 대한 거부감은 확연히 줄었다. 동거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현

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 보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삶이 불투명한 지금, 동거는 차선책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하면, 동거는 상대를 품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순간, 상대의 눈에 벗어나면, 관계는 깨진다.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건, 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버린다.

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 고독사(孤獨死)

고독은 한 번도 유행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고독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휴대폰을 붙들고 살고,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다쳐 산에 들어가 은둔한다. 또 어떤 이는 고독사로 죽거나 외로움에 목숨을 끊기도 한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자아(自我)는 더 가벼워진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기만의 방'에 숨는다. 작가 마루야마 겐지(丸山 健二)는 고독을 이길 힘이 없으면 작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는 혼자일 때가 많다. 그래서 고독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방인』, 『노인과 바다』, 『백년 동안의 고독』 같은 소설들은 고독이란 인간의 감정을 다룬다. 폴 오스터(Paul Auster)의 『고독의 발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한다. 요즘 고독은 다르게 이해된다. 고독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읽힌다. 이제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아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고독(loneliness)과 홀로 있는 것(being alone)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고독은 연결이 끊어진 퍼즐 같은 느낌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병이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

에 38년 동안 누워 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남자는 고독하다. 바로 앞장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간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셨다. 예수님은 병자가 병보다 더 깊은 아픔에 시달리고 있음을 아셨던 것이다. 바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다. 병자에게는 물이 요동하는 순간에, 그를 연못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병이 아니라 고독에,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버려졌다는 상처받은 감정에 묶여 있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채널A>에서 다큐스페셜로 제작된 「남자 혼자 죽다」란 방송을 보니,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놀랍게도 90 퍼센트가 남자다. 심지어 청년까지 홀로 죽는다. 한때는 회사의 CEO, 요리사, 혹은 택시 기사였는데, 죽었다. 홀로 머물던 자리를 치울 사람이 필요해서, 유품정리업도 바빠졌다. 망자는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돈은 세상의 변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사회적 관계의 끈이 약한 이들에게, 경제력 상실은 치명타였다. 병이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자, 이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무심한 일상의 비극을 막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돈은 문제의 원인이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38년 된 병자나 고독사한 사람 모두 가장 절실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이들을 아프게 했는지 알고 있다. 아픈 이유도 안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체가 절실하단 뜻이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나오는 공동체는 지금도 통하기 마련이다. 실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을 동반한다. 신학자 볼프(Wolff)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듯이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는 모두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스웨터 소매에서 실밥이 풀릴 땐 언제나 가장

자리에서 시작한다. 고독은 가장자리에 선 이들을 표적(標的)으로 삼는다. 사실 감정과 네트워크는 부익부 빈익빈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는 혜택이 커지고, 친구가 적을수록 그 혜택이 적어진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복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삶이 자신이 생각한대로 풀려가지 않아 절망한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일이다.

슬픔과 달리 절망은 위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녀를 회복시켰다. 이웃의 시선을 피하려고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복음을 이해하자 절망이 사라졌다.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9절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지라”고 말한다. 한 여인이 회복되자, 그 소식은 전체 마을로 퍼져간다. 동시에 용도 폐기된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하게 된다.

일상이란 미시담론

요즘 키워드는 성공과 힐링이다. 어느 것이든 몰입하면 시선이 좁아진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언제나 ‘어떻게 사는가’와 직결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성경적인 믿음을 잊은 것 같다. 복음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이다. 믿음은 사회적으로 ‘자선’을, 공적으로 ‘정의’를 낳는다. 우린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할 때가 많다. 하지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왜 과부, 나병환자, 창녀, 고아와 거지, 세리, 죄인들에게로 오셨을까?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짧다고 말했지만, 우린 그 짧은 인생도 헛되이 쓸 때가 많다.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 탓에, 사소한 일상의 중요함을 깨닫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로 산다는 것

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사소한 일상이 구원이란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다. 신앙은 성경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텍스트로 구성되기에,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싸움이 중요하다. 오늘이란 하루는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내 삶에 담기위해 주신 시간이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시작한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연보한 과부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관찰자였던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간파하셨다. 어떤 신학자는 하루 번 돈이 겨우 동전 두 닢인 가슴 아픈 현실을 읽어야 하고, 동시에 두 렷돈은 과부의 마지막 한 푼까지 바치게 하는 종교지도자의 탐욕을 경고한다고 해석한다.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와 같은 시대를 사셨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겹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시간, 재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누가 우리 삶의 주인(主人)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거시담론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미시담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담론과 미시담론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한 개인의 미시적 삶은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란 거시담론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왕따, 결손자녀, 노숙자, 싱글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같은 말들은 영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단어들은 일상에서 내 태도(attitude)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일상은 개인의 믿음, 가치, 태도, 성품, 배려 같은 것을 연습하는 영적 훈련장과 같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절묘한 반전

우리 삶에서 하찮은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

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살피신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럿이지만,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방관한 탓도 크다. 그것은 불편한 순간 서로를 품기보다 배척하고 버렸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차 없이 직원들을 해고한다. 좋은 회사는 제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두고 한 말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조각이란 돌을 깨뜨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세상의 도공(陶工)들은 흙이 있는 도자기를 폐기처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흙이 많은 도자기를 품어 명품 도자기로 빚어낸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실 때가 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에 시달리는 떨기나무처럼 말이다. 버려진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볼품 없는 나무를 하나님은 다듬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기물로 빚으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다. 때문에 행복은 각자가 꿈꾸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지만, 그 끝은 언제나 아름답다.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